



“2012 런던올림픽 목표는 세계新”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재현에 도전하는 박태환이 28일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전지훈련 도중 일시 귀국한 박태환은 내달 4일 금메달 담금질을 위해 호주로 되돌아간다. /연합뉴스

2012년 스포츠 ‘타이거즈 2세대들’ 뜬다

- 선동열 감독 - 아들 선민우 프로골퍼 첫발
- 이순철 코치 - 아들 이성곤 연세대서 야구
- 장채근 감독 - 딸 장은서 목포여상서 배구



선동열 감독 이순철 코치 장채근 감독

2012년 ‘타이거즈 체육 가족’이 뜬다. 타이거즈 절친 3인방 선동열·이순철·장채근이 2012년 그라운드로 돌아와 첫 시즌을 맞는다. 투수 선동열은 KIA 감독으로 친정팀에 돌아왔고, 외야수 이순철은 수석코치로 선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포수 장채근도 홈익대 감독으로 현장에 돌아왔다. 빼어난 야구실력과 카리스마로 타이거즈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이들은 나란히 지도자로 복귀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2년에는 2세대까지 동참해 ‘체육가족’으로 눈길을 끌 전망이다.

다. 여기에 장 감독의 딸까지 배구코트에 데뷔하면서 체육가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선 감독의 아들 선민우(중부대 1년)는 지난 8월 한국프로골프투어 Q스쿨 1차전을 통과하면서 프로 골퍼로서의 첫발을 떼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뒤늦게 클럽을 잡았지만 아버지의 손 감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평가다. 이 수석코치의 아들 이성곤(연세대 2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야구인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의 모교인 연세대로 진학해 팀의 내야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곤은 경기교 재학생이던 2009년 청소년 국가대표로 태

극마크를 달기도 했다. 어머니 이미경씨도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만큼 이 수석코치의 가족은 ‘국가대표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장 감독의 딸 장은서(목포 영화여중 3년)는 배구를 선택했다. KIA 한승희의 아버지인 한장석 전 대한항공 감독 등 배구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장은서는 배구를 시작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초보 선수’지만 174cm의 왼손잡

이 라이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목포여상으로 진학해 본격적인 배구선수로서의 길을 걸을 예정이다. 장 감독은 “배구인들이 배구를 지켜보라고 권유를 해서 운동을 시키게 됐다. 생각보다 잘 해가고 있다”며 “나도 지도자로 새로 출발하게 된만큼 2012년에 대한 책임감과 코칭 기대도 된다. 딸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내년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훈련 공개·기자회견

“모든 종목 금메달 따고싶다”

수영스타 박태환(22·단국대)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런던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태환은 28일 오후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수영장에서 훈련모습을 공개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런던올림픽에서의 목표는 세계 신기록”이라며 “신기록을 세우면 좋은 색깔의 메달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환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마이클 볼(호주) 코치의 지도로 두 달간 전지훈련을 하고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다. 내달 4일 다시 호주로 떠나는 박태환은 마이클 펠프스(미국) 등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뒤처지는 잠영 거리가 올해 상하이세계선수권 대회 때보다 좋아졌다는 말을 볼 코치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잠영을 12m 이상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하지만 무조건 잠영을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같은 거리를 누가 빨리 가느냐”라고 조급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박태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과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달라진 점

으로는 나이를 꼽았다. “회복 능력이 좋은 편인데 예전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한 박태환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부담이 된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했던 박태환은 지난해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르며 부활을 알렸다. 올해 상하이 세계대회에서는 자유형 400m 월드컵퍼인 자리를 되찾으며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환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년 전 로마 대회 때 나는 관중았는데 스태프들이 마음을 많이 다쳤다. 올해 세계대회에서 목표했던 것을 이룬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대했던 세계신기록을 깨지 못한 것을 들었다. 박태환은 런던 올림픽에서 나오는 종목마다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했다. 그는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은(중국)과 금메달을 다투고 자유형 200m에서는 펠프스, 라이언 록티(미국), 파울 비더만(독일)과의 4강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넨,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빔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비뒹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최장 700명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리 중간사거리(20번길)

임동사거리

신원사거리

하남

임성

한국카랜드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2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펄싱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